

마지막 복날...보신탕 업주들 “업종 전환 막막”

‘말복’ 준비하는 보신탕집 가보니

내년 2월부터 식용 목적 개 사육·도살·유통 금지
사육농가 광주 9곳→2곳·전남 135곳→24곳 줄어

“말복이라 찾아오는 손님들이 있는데, 내년부터는 이런 모습도 볼 수 없겠죠.” 말복을 하루 앞둔 13일 광주 광산구의 한 보신탕집. 점심시간이 가까워지자 손님들이 하나둘 식당 안으로 들어섰다. 내년 2월 7일부터 식용 목적의 개 사육·도살·유통 등이 금지되면서, 사실상 마지막 복날의 손님들이다.

이날 보신탕 한 그릇 가격은 2만6000원. 손님들은 가격을 듣고 놀라면서도 “이제는 먹기도 힘들다”는 생각에 주문을 이어갔다. 뜨거운 국물이 담긴 독배기가 테이블마다 놓이자 손님들은 익숙한 듯 숟가락을 들었다.

보신탕 가격이 크게 오른 데는 개식용 종식법 시행 영향이 컸다. 2024년 1월 법

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육견 사육농가가 빠르게 줄어든 데다, 폐업 농가에 마리당 최소 22만5000원에서 최대 60만원 수준의 폐업이행금이 지원되면서 개고기 공급량도 감소했다.

13일 기준 광주지역 개 사육농가는 법 통과 전 9곳에서 2곳으로, 전남은 135곳에서 24곳으로 각각 크게 줄었다.

보신탕집 업주 A씨는 “개고기를 구하기도 어렵고 구하더라도 가격이 높아 손님들이 선뜻 주문하지 못한다”며 “차라리 더 저렴한 음식을 파는 게 수익이 나 손님들에게 다른 메뉴를 권할 정도”라고 말했다.

이어 “예전부터 보신탕을 팔아왔는데 인식이 달라지면서 손가락질을 받기도 했



13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의 한 보신탕집에서 말복을 앞두고 손님들이 보신탕을 먹고 있다.

다”며 “이제는 팔 수도 없게 돼 마음의 정리를 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광주 북구 말바우시장의 또 다른 보신탕집 업주 B씨도 “평생 보신탕을 만들어 생계를 이어왔는데 유예기간을 줬다고는 하지만 못 팔게 만드는 건 너무하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농가에는 지원이 많다고 들었는데 식당은 폐업 지원금이 충분하지 않다”며 “지원금을 받으려 해도 준비해야 할 서류가 많고 절차도 복잡해 실제로 받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개 식용 관련 식당과 건강원이 전업할 경우 메뉴판·간판 교체 비용으로 최대 250만원, 폐업할 경우 최대 400만원의 철거비가 지원되지만 업주들은 생계를 이어가기에는 부족하다고 주장한다.

실제 광주지역 보신탕 업소 19곳(식당 14곳·건강원 5곳) 가운데 전업이나 폐업을 선택한 곳은 8곳(식당 4곳·건강원 4곳)에 그쳤다.

육견 사육농가가 빠르게 줄어든 것과 비교하면 식당 등 관련 업소의 전·폐업 속도는 상대적으로 더딘 셈이다. 수습 기간

이어는 영업을 하루아침에 접기가 쉽지 않은 데다 새로운 업종으로 전환할 경우 단골 확보 등 또 다른 생계 문제가 남기 때문이다.

이날 보신탕을 먹으러 온 김모씨(70)는 “오래전부터 먹어온 음식인데 더 이상 먹을 수 없게 돼 안타깝다”며 “닭이나 돼지도 식용으로 키우지만 반려동물로 키울 수 있듯, 식용으로 길러진 개를 먹는 것까지 막는 것은 아쉽다”고 아쉬워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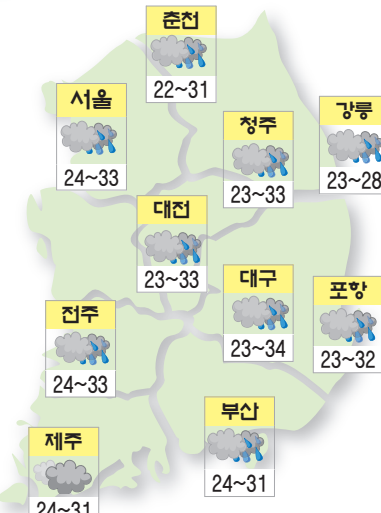
정보람 전문육견관련자영업자협의회 대변인은 “육견 농가의 경우 상대적으로 보상을 많이 받아 폐업을 선택하기가 쉽지만 유통업자나 식당 등 관련 종사자들은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업종을 바꾼다고 해도 새로운 업종에서 다시 단골을 확보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며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은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행정절차 중심으로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글·사진=임재용 기자 djawodyd0316@

오늘의 날씨

예보	05:51	달출	07:14
해질	19:23	달림	20:15



광주		24~34
목포		24~33
여수		24~33
순천		23~33
구례		23~33
광주		23~33
개남		23~33
원도		23~32
흑산도		25~31
고흥		23~32
진남		23~31
진도		23~31

목포	밀물(고)	03:22 / 15:23
	썰물(저)	08:30 / 20:36
여수	밀물(고)	10:07 / 22:33
	썰물(저)	03:57 / 16:05

완도 냉동창고 화재 공사업체 관계자 ‘형사처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한 냉동창고 화재사고와 2명의 소방관 순직 등을 유발한 공사업체 관계자들에게 형사처벌이 내려졌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해남지원 형사1단독 전경태 부장판사는 업무상실화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60)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2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B씨(34·중국·불법체류)에게는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이 판결됐다. B씨는 실형을 면했으나, 국내 체류자격이 없는 탓에 석방 후 본국으로 추방될 예정이다.

A씨 등은 지난 4월12일 완도군 군외면 한 수산물 가공업체 냉동창고에서 바닥 보수공사 중 안전관리 및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불을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

다.

당시 창고 바닥의 인화성 물질인 에폭시 페인트를 제거하던 중 사용이 금지된 토치(화기)를 써서 불꽃이 발생했고, 진화에 투입된 소방관 2명이 순간적인 폭발사고에 의해 순직하는 대형 화재로 이어졌다.

공사업체 대표인 A씨는 상황이 커지자 운전면허가 없는 불법체류 작업자 B씨에게 치를 물고 도망치도록 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허위 진술을 반복하는 등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고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다만, 피해자 측과 합의했고 소량관 순직의 직접적인 책임을 묻기는 어려운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물2020 ‘뿔끝에 피어난 우리들의 이야기’ 13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 1층 라운지에서 열리고 있는 청년종합사회복지관 물2020 ‘뿔끝에 피어난 우리들의 이야기’ 전시회를 찾은 박병규 광산구청장과 전소민 전문강사 및 수강생들이 작품을 감상하고 있다. 청년종합사회복지관은 2020년부터 주민자치 동아리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물2020’을 운영하고 있으며, 동아리 회원들이 제작한 다양한 작품을 지역주민과 공유해 주민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회원 및 직원들의 유휴와 수채화 작품 30여 점을 전시하고 있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광산구, 반도체 시대 ‘살기 좋은 도시 전략’ 짠다

미래 대응 도시재생 종합계획 수립 추진...9월 중 용역 착수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산구가800조원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넘어 ‘살기 좋은 미래도시’ 실현을 위한 종합도시전략 마련에 나선다.

광산구는 미래 도시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광산구 도시재생 마스터플랜(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용역은 첨단산업과 시민 삶이 함께 성장하는 미래도시, 청년이 머물고, 살고 싶어 하는 도시를 만들기 위한 도시재

생 전략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구는 광주송정역 기능 강화, 군 공항 종전부지의 미래산업 거점화에 따른 산업, 정주 환경 변화를 중심으로, 도시재생 추진 방향, 권역별 전략, 단계별 실행계획 등을 수립한다.

향후 도시 공간 변화를 고려한 전략권역 설정, 도시재생 방향에 따른 핵심사업 발굴, 교통 산업 생활 문화 거점 연계 방안 마련 등이 주요 과제다.

용역은 9월 중 착수할 예정으로, 8개월

정도가 소요될 전망이다.

구는수립한 도시재생 종합계획을 토대로 정부 공모 사업 연계 등 도시재생 실행 기반을 확보할 계획이다.

박병규 구정장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사업 발효 이후 광산구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를 목표로 시민과 함께 미래 청사진을 그리고 있다”라며 “‘연결도시 광산’ 비전을 구체화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도시재생 전략을 마련해 반도체 시대를 선도하는 광산의 지속 가능한 미래 설계를 가속화하겠다”고 말했다.

임정호 기자 ljh4415@gwangnam.co.kr

북구, ‘소녀상 건립 9주년 기념행사’ 개최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을 맞아 13일 ‘평화의 소녀상 건립 9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북구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고 평화와 인권 가치를 되새기기 위해 마련됐다.

북구가 주최하고 북구소녀상평화인권추진위원회가 주관한 행사는 이날 오전

10시 북구청 3층 회의실에서 조영대 신부, 지역 의원, 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북구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을 맞아 지난 역사를 되새기고 피해자들을 기억하고자 마련했다”고 말했다.

한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은 위안부 문제를 국내외에 알리고 피해자의 명예와 인권 회복을 위해 제정된 국가기념일이다.

임영진 기자 looks@

광주특별시 남구 치매환자 돌봄현장 동행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진월동의 한 아파트에서 남구보건소 건강증진과 직원들이 이찬순 어르신(오른쪽)에게 폭염 대응 물품을 전달하며 사용법을 알려주고 있다.

치매 어르신 지키는 발걸음...“안부 한마디가 큰 힘”

한자·보호자 가정방문...건강상태 확인·예방수칙 안내 쿨용품 전달·배회감지기 등 지원...총총한 안전망 구축

“어머님, 이렇게 더운데 에어컨 안 켜고 어떻게 지내고 계셨어요. 물은 자주 드셨어요?”

13일 오전 광주 남구 진월동의 한 아파트. 남구보건소 치매관리팀 직원들이 90세 치매환자 이찬순 어르신의 집을 찾았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선 직원들이 가장 먼저 살핀 것은 냉방 상태였다. 에어컨과

선풍기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고 냉장고에 물이 있는지, 실내 온도는 적정하지도 꼼꼼히 살폈다.

연일 낮 최고기온이 40도에 육박하는 폭염 속에서 치매환자는 특히 취약하다. 갈증이나 더위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탈수나 열탈진 위험이 높기 때문이다. 직원들은 쿨스카프와 팔토시, 쿨패치,

클레트, 쿨베개 등을 꺼내 직접 사용법을 보여줬다. “물을 자주 드셔야 한다”, “낮에는 되도록 외출하지 말라”는 당부도 거들었다. 치매환자가 한 번에 많은 내용을 기억하기 어려운 만큼 눈높이에 맞춘 설명이 이어졌다.

결에서 이를 지켜보면 머느리 이정숙씨(66·여)는 “시아머니가 전기세를 아끼겠다며 폭염에도 에어컨을 안 켜는 경우가 많다”며 “치매가 있다 보니 방에서 쓰러지기도 하고 더우면 식사도 제대로 못 하셔서 늘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더운 날씨에 몸 상태가 나빠질까 마음을 졸이는데 직접 찾아와 안부를 확인해주니 가족으로서 큰 힘이 된다”고 했다.

남구가 지원하는 배회감지기도 보호자들의 걱정을 덜어주는 장치다. 스마트워치 형태로 낙상이나 심박수 이상, 장시간 움직임이 없는 상황 등을 확인할 수 있어 보호자가 결을 비운 사이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할 수 있다.

남구는 지난달 14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치매환자와 가족·보호자를 대상으로 ‘폭염 건강관리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전화와 문자 상담은 물론 가정방문을 통해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폭염 예방 교육과 냉감용품도 지원한다.

현재 남구에는 치매 의심 대상자 4339명 가운데 2400명이 치매환자로 등록돼 있다. 이 가운데 독거노인과 만성질환자, 기초생활수급자 등 폭염 취약계층 240여명을 중점 관리하고 있다.

채신애 남구보건소 치매관리팀장은 “치매환자는 폭염 위험을 스스로 인지하거나 대처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지역 사회의 관심이 중요하다”며 “안부를 확인하는 작은 방문이 응급상황을 막는 예방책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폭염 속 어르신을 지키는 것은 거창한 일이 아니다. 에어컨은 켜져 있는지, 물은 충분히 마셨는지 묻는 짧은 안부 한마디가 생명을 지키는 안전망이 되고 있다.

글·사진=임재용 기자 djawodyd0316@